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에서 자기관련적 변인의 중재역할

장휘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고등학교 2학년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착과 MMPI의 하위척도 중 정신증의 관계에서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이 중재변인의 역할을 하는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해 이론변인들간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변화시켜가면서 보다 나은 변인들간의 관계구조를 밝힐 수 있도록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주는 전반적 모형지수와 세부적 지수를 확인하였다. 애착의 측정변인으로는 어머니와 아버지애에 대한 애착점수가 사용되었고 자아상은 5개의 하위요인이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는 홀수문항과 짝수문항을 구분하여 사용되었다. 또한 편집증 척도, 강박증 척도 그리고 정신분열증 척도의 T점수가 정신증의 측정변인으로 사용되었다. 공변량구조분석결과 애착에서 자아상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하였고 자아상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그리고 정신증에는 유의한 부적인 직접 효과를 미침으로써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에서 자아상이 중재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같은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애착과 MMPI 하위척도들 사이에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장휘숙(1997a)의 연구에 대한 후속적 분석으로 애착과 MMPI 하위척도 중 편집증 척도(Pa), 강박증 척도(Pt) 그리고 정신분열증 척도(Sc) 등 소위 정신증 척도와와의 관계에서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장휘숙(1997a)의 연구에 의하면, 정상집단의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안정된 애착양식을 갖는 청소년들이 MMPI 하위척도의 대부분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얻고 회피적 애착양식을 갖는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 집단은 두 집단의 중간에 위치하는 일관성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IPPA로 측정된 어머니와 아버지애에 대한 애착점수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애착 상집단의 청소년들이 MMPI의 대부분의 하위척도들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고 애착 중담단이나 하집단은 일관성있게 상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 애착점수에 따른 일관성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에서는 MMPI 하위척도들에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개인의 정신병리적 경향성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같은 장휘숙의 연구결과는 임상표본을 대상으로 성인애착면접(AAI)을 사용하여 애착과 정신병리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그 예로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청소년들(13.08세-19.75세)과 그들의 어머니를 연구한 Rosenstein과 Horowitz(1996)는 성인애착면접(AAI)을 사용하여 애착양식을 측정한 결과, 어머니의 애착양식과 청소년의 애착양식이 서로 유사하였을 뿐 아니라 거부적 애착양식을 갖는 청소년들은 행동장애나 약물남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혹은 편집증적 성격특성을 지니는 경향이 있는 반면, 몰두된 애착양식을 갖는 청소년들은 정서장애, 강박장애 및 정신분열증적 성격장애를 지니는 경향이 있어 안정되지 못한 애착과 정신병리가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임신중에 있는 병리적 환경의 가난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애착양식과 MMPI-2의 관계를 연구한 Pianta 등(1996)의 연구에서도 불안정한 애착과

정신병리가 강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성인애착면접(AAI)을 실시하여 애착양식을 측정하고 결과 선행연구들(Allen 등, 1996; Kobak 등, 1991; Kobak & Sceery, 1988)과 일치되게 몰두된 애착양식집단이 가장 높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애착양식과 정신병리가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애착양식과 임상적 청소년들의 자살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Adam 등(1996)은 몰두된 애착양식을 갖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살할 생각을 다른 두가지 애착양식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병적 증후를 갖는 성인들(21세-60세)을 대상으로 연구한 Dozier(1990)도 불안정한 애착양식과 정신병리적 특성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성인애착면접에서의 거부적 애착양식과 몰두된 애착양식은 Hazan과 Shaver가 분류한 성인의 애착양식 중 안정되지 못한 애착양식인 회피적 애착양식 및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과 동일한 애착양식으로 간주된다. 두가지 분류방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착양식의 명칭이 서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두가지 분류방법 모두 Ainsworth 등(1978)이 분류한 3가지 애착양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Ainsworth 등과 동일한 분류방법을 사용한 Hazan과 Shaver의 안정된, 회피적,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은 AAI의 자율적-안정된, 거부적 그리고 몰두된 애착양식과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AAI의 분류체계를 확립한 Main과 Goldwyn(1985)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개인의 정신병리가 불안정한 애착과 관련되어 있다는 상기 연구들의 이론적 근거는 Bowlby(1969)가 제안한 내적 작동모델의 개념에 기초한다. Bowlby는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지속되어 이후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여기서 내적 작동모델이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애착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하고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접근하

는 것을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에 해당한다.

Bowlby에 의하면,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갖는 애착의 질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상이한 신념을 갖도록 한다. 양육자에 대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타인을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을 주는 타인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 확신을 갖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에 바탕을 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할 것이다. 그에 따라 성장한 이후에도 그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타인과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양육자에게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가치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에 기초된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할 것이므로 자신을 가치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지각할 뿐 아니라 타인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병리적 증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적응이나 안녕과 관련된 후속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중재변인을 경유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들이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착과 우울증의 관계를 연구한 Roberts 등(1996)은 불안정한 애착은 우울증후군과 연합되어 있으나 세 개의 양식(안정된, 회피적, 불안한/양가적) 모두는 우울증후군 변량의 단지 12% 정도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Roberts 등은 후속 연구에서, 경로분석을 통하여 불안정한 애착과 우울증 사이의 관계가 역기능적 태도와 낮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중재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애착이 자기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통하여 후속적 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휘숙(1997b)도 안정된 애착, 회피적 애착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 모두에서 애착→자아상→자아존중감→희망의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이 애착과 희망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변인이라고 밝혔다. 이와같은 결과는 인생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후속적 발달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그것이 시간상으로 가까운 발달과 먼 발달에 기여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개인의 자아상이나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인생초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할 것이므로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상이한 특성들로 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희망이나 우울증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은 자기관련적 특성들보다 시간상으로 이후에 형성될 것이므로 애착양식보다는 오히려 자아상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기관련적 사고로 부터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나 우울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으로 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자기관련적 변인으로 부터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로부터 받는 영향은 간접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애착과 희망 그리고 애착과 우울증의 관계가 자아상이나 자아존중감에 의해 중재된다는 장휘숙이나 Roberts 등의 연구는 Hazan과 Shaver(1987)가 제안한 성인애착의 3범주모델에 따라 애착의 질적 특성을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으로 구분하고 중재변인의 역할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성인기에도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양식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한 Hazan과 Shaver는 Ainsworth 등(1978)이 분류한 애착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성인의 애착양식을 분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애착의 3범주 척도는 개인으로 하여금 3개의 범주 중 하나의 범주를 선택하도록 함으로 개

인이 3개의 애착유형과 단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을 때는 선택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애착의 3범주 척도는 어떤 사람이 안정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다고 응답할 때도 실제로 그가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과도 대단히 가깝다고 지각할 수 있는가 하면, 회피적 애착양식과도 대단히 가깝다고 지각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나머지 두가지 유형 어느 것과도 상관이 없이 오로지 자신은 안정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다고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애착의 3범주 척도를 배제하고, 연속적 애착척도인 IPPA를 사용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를 측정하고 그것들이 MMPI의 하위척도 중 소위 정신증에 해당하는 3개의 척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동시에 자기관련적 변인인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장휘숙(1997b)은 이미 애착과 희망의 관계가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에 의해 중재된다고 밝힌바 있기는 하지만, 희망이라는 요인은 개인의 긍정적 특성인 반면, 정신증은 개인의 병리적 경향성에 해당하므로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는 애착과 희망의 관계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휘숙(1997)의 지적처럼 자기관련적 변인 중 자아상은 자신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의 특성을 포함하는 중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인 반면(Offer & Howard, 1972; Wylie, 1974), 자아존중감은 단일차원적인 평가적 구성개념임으로(Rosenberg, 1979) 자아상을 자아존중감의 선행변인으로 하여 애착, 자아상, 자아존중감 및 정신증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공변량구조분석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이변인들간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변화시켜가면서 보다 나은 변인들간의 관계구조를 밝힐 수 있도록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그리고 RMSR(root mean square residual)과 같은 모형의 적합도를 알려주는 전반적 모형지수와 Lisrel estimate(직접효과) 및 T-value(고정지수)의

세부적인 지수를 확인하였다.

장휘숙(1997a)의 연구에서 IPPA로 측정된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에 따라 MMPI의 하위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한 애착의 측정변인으로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를 제외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아상의 5개 하위요인 모두를 측정변인으로 활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는 단지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홀수문항과 짝수문항을 구분하여 각각을 측정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MMPI 하위척도들 중 편집증 척도, 강박증 척도 그리고 정신분열증 척도의 T점수를 정신증의 측정변인으로 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이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2학년 4개반 학생 182명이 표집되었다. 부모 중 어느 한 편이 부재하거나 응답을 누락한 학생을 제외하고 분석이 가능한 학생은 178명이었다. 애착검사는 과목 담당교사에 의해 수업시간에 실시되었으며 MMPI는 동일한 교사에 의해 방과후에 이루어졌다. 검사실시시간으로 애착검사는 20분정도 그리고 MMPI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15.87세(SD=0.82)였다.

2. 척도

1) 애착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가 사용되었다. 원래의 검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

하지 않고 28개의 부모문항과 25개의 동년배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여 각각 25문항씩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고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장휘숙(1997a)의 연구에서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정신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동년배 문항은 사용되지 않았다.

원래의 IPPA는 세 개의 하위척도(신뢰, 의사소통, 소외)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들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음으로써 하위척도들을 무시하고 전체점수를 계산하였다. 어머니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는 .91 그리고 아버지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는 .92였다.

2) 자아상 검사

10대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느낌과 태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개발된 OSIQ(Offer Self-Image Questionnaire)의 수정판이 사용되었다(Offer 등, 1981). 원래의 검사는 10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며 전체 1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Patton과 Noller(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118개의 문항 중, 정서적 자아, 사회적 양심, 개인적 대처, 가족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는 4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6)까지 6점척도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계산된 각 하위요인 별 Cronbach α 계수는 다음과 같다: 정서적 자아 .88, 사회적 양심 .58, 개인적 대처 .65, 가족관계 .69 그리고 사회적 관계 .78이었으며 전체 자아상 검사의 Cronbach α 계수는 .89였다.

3) 자아존중감 검사

전체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검사가 사용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계수는 .8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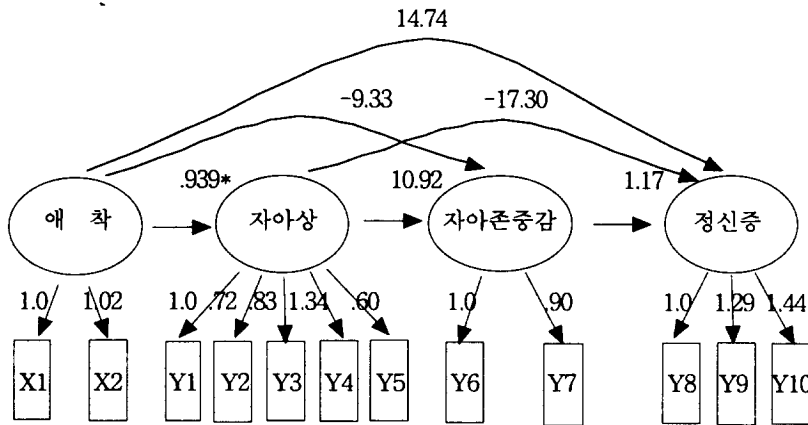
4)MMPI

MMPI는 56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검사로서 정신과적 진단을 위한 분류검사이나 정상인의 행동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김중술, 1996)이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개정판인 MMPI-2가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개정판이 만들어지지 않아 원래의 MMPI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피검사자는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혹은 “그렇지 않다”의 두가지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피검사자의 반응은 비정상적 행동을 측정하는 10가지의 임상척도와 그 사람의 검사태도를 측정하는 4가지의 타당도 척도에 따라 채점되나 이 연구에서는 10개의 임상척도 중 정신증 척도인 편

집중(paranoia; Pa) 척도, 강박증(psychasthenia; Pt) 척도 그리고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Sc) 척도만이 사용되었다.

결과 및 해석

연구자는 먼저 <그림1>과 같은 구조모형을 가정하였다. 이 모형은 애착이 자아상과 자아존중감 및 정신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자아상은 자아존중감과 정신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자아존중감은 정신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모형에 해당한다. 공변량구조분석결과 전반적인 지수인 GFI는 .90이



$\chi^2(48)=104.36, P<.001, GFI=.902, AGFI=.840, RMSR=.124$

* : 고정지수(T-value)가 2이상인 경로. 단, 측정변수와 이론변수간의 관계는 모두 2이상으로 *표를 생략하였으며 이후 동일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 그림에 나타난 수치들은 Lisrel estimate이다.

X1: 어머니 애착점수, X2: 아버지 애착점수, Y1-Y5: 자아상 1요인부터 자아상 5요인까지

Y6: 자아존중감 홀수문항점수, Y7: 자아존중감 짝수문항점수

Y8: MMPI-Pa척도, Y9: MMPI-Pt척도, Y10: MMPI-Sc척도

<그림 1> 애착, 자아상, 자아존중감 및 정신증에 관한 공변량구조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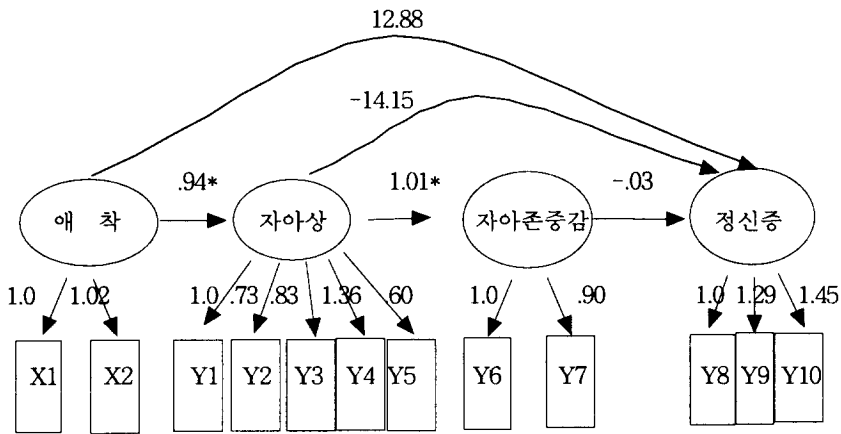
상이어서 모형이 타당함을 나타내나 세부적인 지수를 고찰할 때, 애착에서 자아상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만이 고정지수 2이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가정된 구조모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모형을 수정한 두 번째 모형은 <그림2>와 같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애착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직접적 경로만을 제외하였다. 이 모형의 GFI는 .90이상으로 첫 번째 모형과 비슷한 적합도를 나타내었을 뿐아니라 세부적인 지수로서 애착에서 자아상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와 자아상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애착에서 정신증으로 가는 직접적 경로와 자아존중감에서 정신증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역시 모형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될 수 있었다.

<그림3>의 세 번째 모형에서는 애착에서 정신증으로 가는 직접적 경로가 제외되었다. 공변량구조분석 결과 GFI는 .90을 유지하였으나 세부적인 지수로서 자아존중감에서 정신증으로 가는 직접적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이 모형 역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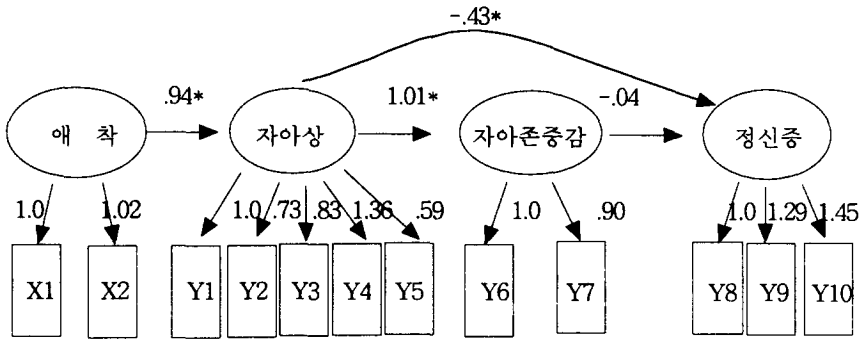
세번째 모형에서 자아존중감에서 정신증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로를 제외한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에 앞서 자아상에서 정신증으로 가는 직접적 경로를 제외한 모형을 먼저 확인하고자 하였다.

공변량구조 분석결과, <그림4>와 같이 자아존중감에서 정신증으로 가는 직접적 경로가 유의하기는 하였지만, GFI가 .90미만이어서 부적합한 모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세 번째 모형을 다른 방식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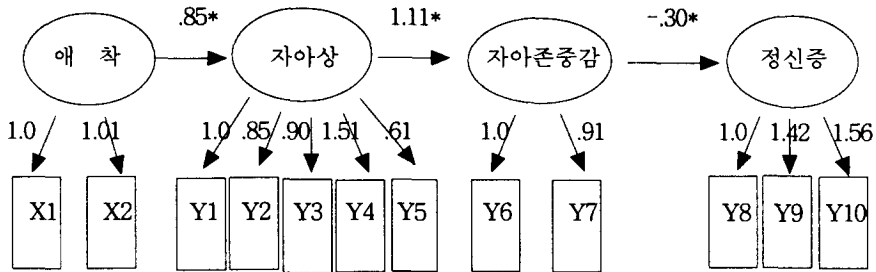
$\chi^2(49)=104.90, P<.001, GFI=.901, AGFI=.843, RMSR=.127$

<그림 2> 애착, 자아상, 자아존중감 및 정신증에 관한 공변량구조모형 2



$\chi^2(50)=104.96, P<.001, GFI=.901, AGFI=.846, RMSR=.127$

<그림 3> 애착, 자아상, 자아존중감 및 정신증에 관한 공변량구조모형 3



$\chi^2(51)=111.31, P<.001, GFI=.895, AGFI=.840, RMSR=.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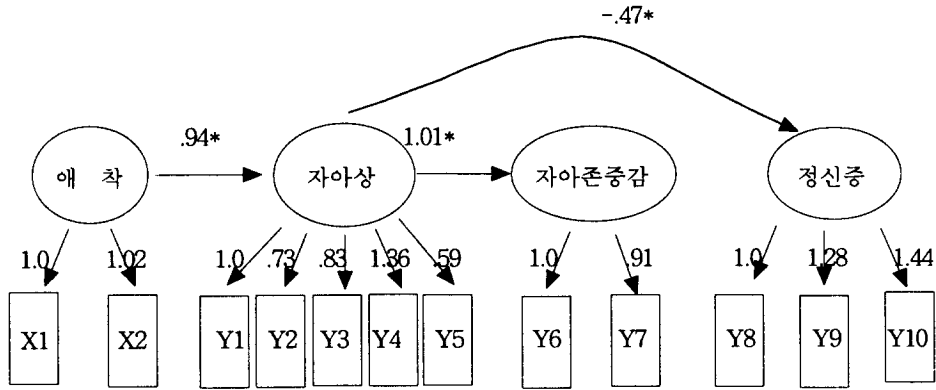
<그림 4> 애착, 자아상, 자아존중감 및 정신증에 관한 공변량구조모형 4

위의 네 번째 모형에서는 세 번째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유지하고 유의한 경로를 오히려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와 적합도가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그림5>와 같이 다섯 번째 모형에서는 세 번째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만을 제거하였다.

공변량구조 분석결과 GFI는 .90을 유지하였고 애착에서 자아상으로 가는 직접적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자아상은 자아존중감에는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그리고 정신증에는 부정적인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은 이론변인들간의 관계를 더 이상 생략할 수 없는 상태여서(이론변인이 4개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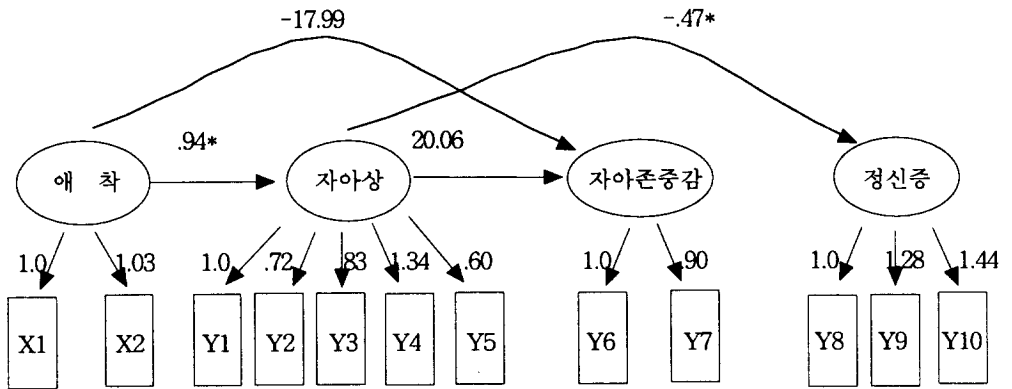
로 관계경로는 최소한 3개 이상이어야 한다) 전반적 지수와 세부적 지수들이 모두 적절하다고 해석

할 수 있었다. 다만 전반적 지수를 좀더 높일 수 있는 관계구조를 탐색하기 위하여 이 모형에서 설정



$\chi^2(51)=105.04, P<.001, GFI=.901, AGFI=.849, RMSR=.128$

<그림 5> 애착, 자아상, 자아존중감 및 정신증에 관한 공변량구조모형 5



$\chi^2(50)=104.52, P<.001, GFI=.902, AGFI=.846, RMSR=.126$

<그림 6> 애착, 자아상, 자아존중감 및 정신증에 관한 공변량구조모형 6

하지 않은 관계를 추가시켜 보았다.

<그림6>은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다섯 번째 모형에 이론변인들간의 가능한 관계를 하나 더 추가한 모형구조이다. 공변량구조 분석결과 GFI는 다소 올라갔으나 AGFI는 오히려 낮아지고 세부적 지수 중 애착에서 자아존중감 및 자아상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직접적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섯 번째 모형보다 더 나은 모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그림1>에서 <그림6>까지의 관계구조 중 <그림5>의 구조모형이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다시 말하면 애착은 자아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고 자아상은 정신증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줌으로써 자아상이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를 중재하는 중재변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논의

이 연구는 청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과 MMPI 하위척도 중 편집증 척도, 강박증 척도 및 정신분열증 척도 등 소위 정신증 척도의 관계에서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이 중재역할을 하는가를 규명하고자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변인들간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보다 나은 변인들간의 관계구조를 찾아내기 위하여 전반적인 모형에 관한 지수와 세부적 지수를 함께 활용하였다.

각 이론변인을 위한 측정변인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점수를 사용하고 5개의 자아상 하위요인 모두를 측정변인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아존중감은 홀수문항과 짝수문항을 구분하여 측정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신증의 경우에는 MMPI 하위척도 중 편집증 척도, 강박증 척도 및 정신분열증 척도의 T점수를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공변량구조 분석결과, 청소년들의 정신증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의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간접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 대한 애착은 개인의 자아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다시 정신증에 부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자아상은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를 중재하는 소위 중재변인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Bowlby(1977)의 주장대로 인생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지속되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물론 정서와 행동의 규제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의 발달은 Erikson(1968)의 주장대로 점성원리(epigenetic principle)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장한 이후의 발달은 누적된 발달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생초기에 형성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전생애동안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자기관련적 개념이나 특성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자기관련적 개념은 다시 후속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점성적 발달양상이 가정될 수 있다.

Roberts 등이나 장휘숙(1997b)의 연구와 동일하게 이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은 개인의 자아상에 영향을 주고 자아상은 다시 정신증에 영향을 주는 애착→자아상→정신증의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에서 자아상이 중재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에서 정신증으로 가는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음으로써 Roberts 등이나 장휘숙(1997b)과는 차이를 보였다.

장휘숙(1997b)의 설명대로,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단일차원적인 평가적 구성개념이고 자아상은 자신에 대한 여러측면의 특성을 포함하는 중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이라면, 개인의 정신증에는 자기에 관한 평가적 요인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에서 밝혀진 자아상과 정신증의 연합은 개인의 정신증의

발병에는 자신에 대한 중다차원적 특성인 자아상이 자신에 대한 평가적 특성인 자아존중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Roberts 등이나 장휘숙(1997b)의 연구와 비교할 때 이 연구에서 밝혀진 애착→자아상→정신증의 경로는 애착과 후속적 발달의 관계에서 자기관련적 변인이나 특성이 증재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후속적 발달의 특성에 따라 증재변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정신병리를 적응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정에서 정상적 발달과정으로부터의 이탈로 간주하는 발달적 경로조망(발달정신병리적 조망)에서는 애착의 질적 특성이 발달적 이탈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Bowlby, 1988). 다시 말하면 애착의 질적 특성은 개인이 갖는 정신병적 증후에 대해 차이나는 취약성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록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정신병리적 특성을 동일 시점에서 측정하기는 하였지만, 발달적 경로조망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관련적 변인이 애착과 병리적 발달의 관계를 증재하는 증재변인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의 특성에 기인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기관련적 특성에 대한 개념정의와 함께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을 타당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중술(1996). 다면적 인성검사 - MMPI의 임상적 해석 - (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부.
 장휘숙(1997a). 청소년의 애착과 MMPI 하위척도들의 관계. *임상심리학회지* 제제예정.
 장휘숙(1997b). 애착과 희망의 관계에서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의 증재역할. *인간발달연구* 제제 예정.

Adam, K. S., Sheldon-Keller, A. E., & West, M. (1996). Attachment Organization and History of Suicidal Behavior in Clinical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 2, 264-272.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No. 5, 427-454.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421-431.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Palo Alto, CA.

Dozier, M. (1990). Attachment Organization and Treatment Use for Adults with Seriou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7-60.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No. 3, 511-524.

Offer, D., & Howard, K. I. (1972).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Arch. Gen. Psychiatr.* 27, 529-537.

Offer, D., Ostrov, E., & Howard, K. I. (1981). *The Adolescent: A Psychological Self-Portrait*. Basic Books, New York.

Pianta, R. R., Egeland, B., & Adam, E. K. (1996).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and Self-reported Psychiatric Symptomatology as Assessed by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 2, 273-281.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310-320.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Rosens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 2, 244-253.

Wylie, R. C. (1974). *The Self-Concept: A Review of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nd Measuring Instruments*(Vol. 1, rev. ed.).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Lincoln.

The Mediating Roles of Self-related Variables in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Psychosis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o investigate whether the self-related variables, self-image and self-esteem,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psychosis, attachment styles to mothers and fathers in high school female adolescents were measured and paranoia, psychasthenia and schizophrenia scales among MMPI subscales were used.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firmed the self-image is the medi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psychosis. It is concluded that attachments to caregiver in infancy influence to later psychosis by way of self-imag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epigenetic principles of Erik Erikson.